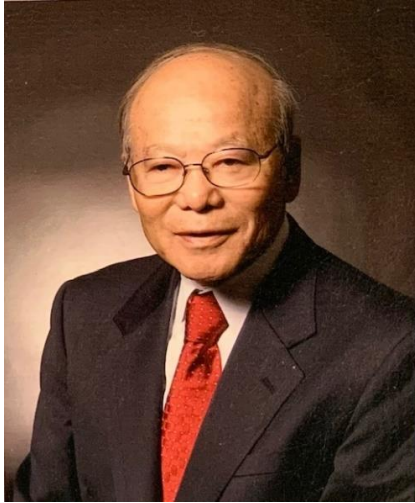


고 최태순(61년) 선배님을 그리며.



버팔로에서 레지던트를 시작했을 때 최태순 선배님을 처음 만나 뵈었고, 선배님과 사모님의 인자하시고 따뜻하신 보살핌 덕분에 타국, 타지에서 외로움을 앓을 사이도없이,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그곳에서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내다가 뉴욕으로 떠나왔다.

지난 1월 18일, 선배님의 임종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과 죄책감을 지울 수 없었다. 은퇴하신 후 두 따님이 직장을 갖고있는 피츠버그로 옮기셨다. 버팔로에 계시는 동안 두번, 이년전 피츠버그에 한번 찾아뵈는 것이 마지막이 되었을줄이야?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할 수 없는 슬픔을 가슴에 되새기게 된다.

선배님께서 버팔로 근교 Orchard Hill (Buffalo Bills의 홈구장이 있는)에 있는 Mercy Hospital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40년을 근무하시고 은퇴하셨다. 우리 모든 동문들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 최선배님의 열의와 정성은 참으로 지극하시어, 한밤중에도 전화가 오면 얼굴 한 번 찡그리지 않으시고 병원으로 달려가셨다. 항상 선배님을 극진히 보살펴주시고, 함께 운전해 가시며, 차안에서 잠깐이라도 눈을부치시게 하시며 애뜻하게 아껴주신 사모님의 55년에 걸친 알뜰한 아내 역할이 큰힘이 되셨겠지만. 병원 직원들의 감탄과 감사는 근무하시던 40년동안은 물론, 임종 소식을 들은 바로 다음날 병원장이하 모든 병원 식구들의 염원이 뭉쳐 신생아 중환자실을 Dr. Tai Soon Choi NICU로 바꾸었다.



호주머니에 달랑 \$50 을 가지고 미국으로 이민 오신 이후, 두명의 의사 및 한명의 교육자인 세 자녀들, 그들의 사랑의 열매인 여섯 손주들을 모두 사랑으로 아울러 다목한 가정을 꾸려오실 수 있게 해주신 그 모든 것을 항상 하느님께 감사하셨습니다. 버팔로 카톨릭 사회에서 초대 회장으로 활약하셨고, 교우들과 후배 의사 가족들에게 항상 인자하신 아버지처럼 대해주신 최선배님을 모두들 오랫동안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오랫동안 지병을 앓으시다 돌아가셨지만, 이젠 그곳에서 마음껏 뛰어다니시고, 날아다니시고, 더욱 활약하시면서 이곳에 남아있는 우리 모두를 더욱 살뜰히 보살펴 주시리라 믿는다. 저쪽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하느님의 품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서인석 ('73 대뉴욕지부)